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5

▶ **26회 예고**
아쇼까는 우빠굽따에게 마간디야 왕비의 악행 이야기를 듣는다. 마간디야가 첫째 왕비 사마왓띠를 괴롭히지만 그녀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애롭게 대처한다.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곤 했던 것이다.



아쇼까, 달밤에 우빠굽따 찾아가다

석양은 지평선에서 느릿느릿 움직였다. 지평선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가라앉고 있었다. 저녁 특식을 배불리 먹은 군사들이 야무나강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뒤, 군사들은 시원한 강바람에 젖은 옷과 몸을 말렸다. 모래밭은 아직도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덕에 있는 고시따라마 사원도 강바람이 올라왔다.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물총새처럼 팔랑팔랑 날갯짓을 했다. 아쇼까는 따뜻한 벽돌에 앉아 있다가 전령을 불렀다.

"전령, 선봉대장은 어디 있는가?"

"강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점호할 시간이네."

군사는 적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되었다. 엄한 군기는 항상 유지해야 했다. 군기가 풀리면 군율이 흐트러지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군사들을 너무 옥죄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경계해야 했다. 석양이 지고 나자 땅거미가 스멀스멀 몰려왔다. 마치 날벌레 떼처럼 산지사방에서 날아오는 듯했다. 그래도 서쪽하늘은 피딱지 같은 검붉은 노을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선봉대장이 아쇼까에게 달려왔다.

"부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군사들은 아직 작전 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러니 점호를 끝낸 뒤 고시따라마 사원 안에서만 대기하게 하시오."

"불볕더위에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강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만."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그럴 수는 있소. 그러나 진압군을 모두 데리고 나가는 것은 군기를 해이하게 하는 일이오. 그러니 앞으로는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지적을 즉시 받아들였다. 야무나강으로 나가 있는 진압군 군사들을 모두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불러들였다. 군사들은 부대별로 야영에 들어갔다. 고시따라마 사원은 진압군의 숙영지로서 충분했다. 그만큼 넓고 승방 건물들은 허물어졌지만 야영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았다. 아쇼까는 전령만 데리고 고시따라마 사원 안을 순시했다.

마침 보름달이 떠올라 경계를 서는 군사들의 얼굴이 환히 비쳤다. 저녁특식을 먹고 강물에 목욕까지 한 경계군사들의 사기는 한껏 올라 있었다.

"그대는 어디 소속인가?"

"기마부대입니다."

"고향은 어디인가?"

"베살리입니다."

"한때 나를 가르쳤던 사문이 계신 곳이지."

아쇼까는 경계군사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격려했다. 어린 아쇼까를 가르쳤던 스님은 목갈리뿟따띳사였다. 빈두사라가 아쇼까에게 다양한 종교와 가치를 접하게 하려고 초빙했지만 아쇼까와 인연이 다해 베살리로 떠나버린 스님이었다. 목갈리뿟따띳사가 어린 아쇼까에게 자비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실망한 채 자신의 수행처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다.

"이제 군막으로 가시죠."

"빠딸리뿌뜨라에도 보름달이 떠 있겠군."

"대왕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

"저는 가족이 생각납니다."

"나도 가끔 그렇지. 그런데 오늘밤은 나를 가르쳤던 사문이 생각나네. 보름달 때문인가?"

"부왕님께서도 잊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달처럼 자애로운 분이셨지."

"부왕이시여, 어떤 분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전령은 아쇼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에는 말을 붙이지 못했지만 달을 바라보는 아쇼까에게서 부드러운 내면을 느꼈던 것이다. 전령의 짐작대로 아쇼까는 약간은 감상적으로 말했다.

"자애로운 한 사문이 계셨지. 어린 시절 내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를 죽이자 살생하지 말라고 타일렀어. 어린 새들을 쫓는 큰 까마귀에게 새총을 쏘려고 할 때도 살생하지 말라고 막았지. 나는 사문의 말을 듣지 않았어. 나뭇잎을 살리려고 애벌레를 죽였고, 작은 새들을 지키려고 새총으로 큰 까마귀를 쫓아버렸거든."

"사문은 어찌 됐습니까?"

"나에게 실망하고 떠났어. 어머니께서 나를 더 맡아달라고 하셨는데도 베살리로 가버렸지."

"보름달을 보시면서 사문을 생각하셨군요."

"아까 낮에 보았던 사문도 생각나는군. 두 사문이 어딘가 닮았어."

"꿈속에서 부왕님을 보았다는 그 사문 말씀이군요."

"걸음걸이나 언행이 비슷해."

아쇼까는 군막으로 가지 않고 순시를 더 돌았다. 그때였다. 반대쪽에서 선봉대장이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순시를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보자마자 무엇이 생각난 듯 전령에게 말 두 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성 밖에 있다는 꾸꾸따라마 사원으로 가보세."

"낮에 보았던 사문이 머물고 있는 사원 말입니까?"

"잊지 않고 있군. 우빠굽따 사문을 만나고 싶네."

"제가 앞서겠습니다."

선봉대장은 꾸꾸따라마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아쇼까의 지시대로 낮에 우빠굽따를 말에 태우고 다녀왔기 때문이었다. 꼬삼비성 밖 들판은 달빛이 가랑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먼 곳의 푸르스름한 망고동산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들판의 가장자리인 언덕 아래로는 야무나강이 흘렀다. 강 상류 쪽에서는 휘황한 횃불이 타올랐다. 어부들이 켠 횃불은 고기들을 유인했다. 고기들은 횃불을 보고 몰려들었던 것이다.



우빠굽따는 샤나까바시의 제자였다. 샤나까바시는 붓다의 제자인 아난다를 신봉하는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우빠굽따도 붓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봉했던 아난다의 언행을 흠모했다. 우빠굽따의 소원이 있다면 아난다가 붓다를 모시고 다녔던 곳을 모두 순례하는 것이었다.

"부왕이시여, 이곳이 꾸꾸따라마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 우빠굽따 사문이 있다는 말인가?"

꾸꾸따라마 사원도 고시따라마 사원처럼 폐허나 다름없었다. 지붕 없는 승방들이 달빛에 드러나 있었고 원숭이들이 무너진 승방과 긴 회랑에서 어슬렁거렸다. 반얀나무 둥치에 수행자 몇 사람이 들짐승처럼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달빛에 칼날같이 반짝거렸다. 선봉대장이 말을 타고 다가서자 수행자들이 피하듯 물러났다. 우빠굽따만이 가부좌를 튼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낮에 선봉대장의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사문이여, 부왕님이 오셨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문을 뵈려고 오신 것이오."

그제야 우빠굽따가 일어나 십여 걸음 떨어져 있던 아쇼까에게 갔다. 아쇼까는 말에서 내려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쇼까의 머리는 달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다. 아쇼까 옆에는 거대한 벽돌탑의 사각기단만 남아 있었다.

"부왕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사문이 어떤 곳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소."

"보시다시피 이곳은 폐허나 다름없는 사원입니다. 몇몇 수행자들과 원숭이들만 살고 있습니다."

"고시따라마 사원과 비슷하군요."

"부왕이시여, 거기 앉으시지요."

"사문이 내 옆에 앉는다면 나도 앉겠소."

"옆에 앉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보름달을 등지고 앉았다. 선봉대장은 경계를 서듯 두 마리의 말고삐를 잡고 십여 걸음 물러서 주변을 살폈다. 아쇼까가 물었다.

"왜 이곳에 머물고 있소?"

"꼬삼비는 부처님께서 두 해를 사셨던 성지입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와 있다는 것이오?"

"부처님을 한없이 존경했던 아난다 존자를 닮고 싶어서 찾아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삼비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께서 계셨던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아쇼까는 존경심 때문에 붓다와 아난다가 머물렀던 곳을 순례한다는 우빠굽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수행자를 존경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 아쇼까가 궁금한 것은 왕들의 통치능력이었다.

"꼬삼비 왕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누구였소?"

"코끼리를 잘 탄 우데나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자인 왕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지만 공주를 꾀어내어 탈출했던 지략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데나왕의 왕비도 뛰어났겠지요?"

"사마왓띠 왕비와 마간디야 왕비가 있었지요. 그런데 모두 훌륭한 왕비는 아니었습니다. 마간디야가 사마왓띠를 질투해서 왕비와 5백 명의 시녀를 불태워 죽였으니까요."

"그러고도 무사했단 말이오?"

"과보를 받아 마간디야 왕비 역시 불에 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아쇼까는 자신도 모르게 우빠굽따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 우빠굽따의 언변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가 어느 성을 가든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만큼 그는 붓다의 말씀을 줄줄 외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었다. 아쇼까는 사마왓띠가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 빠딸리뿌뜨라에 있는 두 번째 부인 아상가밋따와 꾸날라를 낳은 뒤 죽은 첫째부인 빠드마바띠가 떠올라 더 알고 싶었다.

"사마왓띠 왕비 얘기를 듣고 싶소."

"고아로 불행했지만 나중에는 왕비가 된 인물이지요."

보름달은 어느 새 중천에서 달빛을 뿌렸다. 아쇼까와 우빠굽따의 정수리에 내려쌓인 달빛이 일렁였다. 우빠굽따는 사마왓띠 왕비 이야기를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실타래를 풀듯 시작했다.

"사마왓띠 왕비는 원래 브라흐민 대부호 밧다왓띠야의 외동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밧다와띠야가 사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다. 처음에는 벌레와 가축들이 죽더니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숨을 거두었다. 도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산 사람들은 집과 가재도구를 버리고 가능한 한 멀리 피난을 떠났다. 밧다와띠야는 아내와 사마왓띠를 데리고 왐사국 수도 꼬삼비까지 왔다. 마침 꼬삼비에서는 굶주린 피난민들을 위해 구휼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밧다와띠야가 꼬삼비까지 온 이유는 왐사국 재정관인 고사카가 친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밧다와띠야는 친구 고사카에게 바로 갈 수는 없었다. 가족 모두 행색이 거지꼴이었고 며칠 동안 굶주려 바로 쓰러질 것만 같아서였다. 밧다와띠야 가족은 먼저 구휼소를 물어 물어서 찾아갔다. 구휼소 앞에는 피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마왓띠는 창피하다고 차마 줄을 서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음식을 탔다. 그녀는 배급받은 음식을 부모에게 갖다드렸다. 그러나 아버지 밧다와띠야는 허겁지겁 먹다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날 급사했다. 무슨 변인지 다음날은 어머니도 음식을 먹고 난 뒤 세상을 떠났다. 너무 허기진 데다 남편을 잃은 공포가 겹치어서였다. 사마왓띠는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다. 셋째 날이었다. 사마왓띠가 1인분만 음식을 달라고 하자, 급식을 담당하는 관리 밋따가 의아해했다. 날마다 3인분에서 2인분, 2인분에서 1인분으로 음식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급식이 끝난 뒤, 밋따는 사마왓띠를 따로 불러 음식의 양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사마왓띠 사연을 다 듣고 난 밋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



